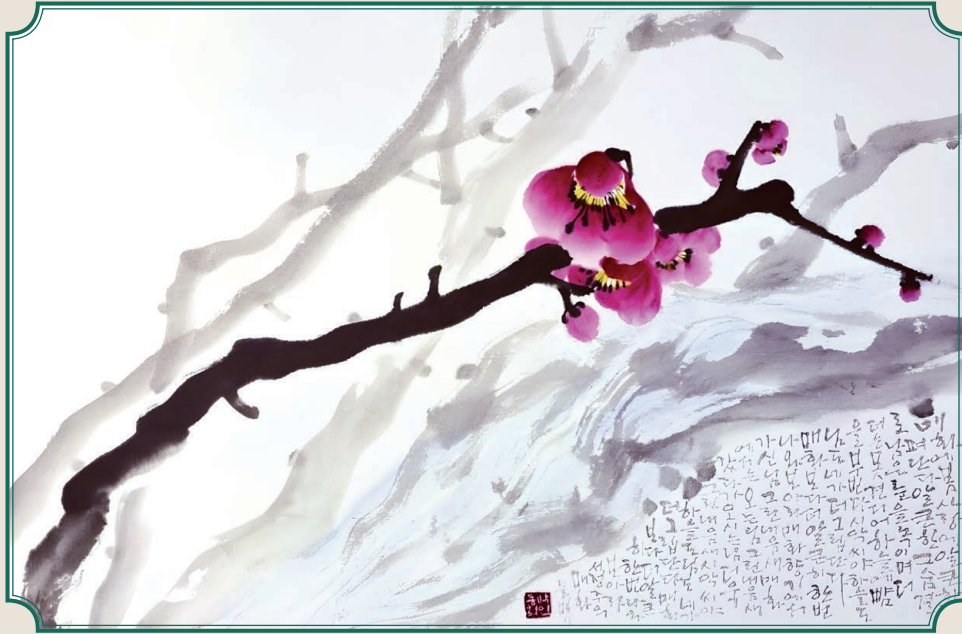


고난을 이겨낸 자만이 아름답게 필 수 있습니다

글, 한시 윤호 이진호
문인화 늘빛 박동희

○ 추위를 이겨내고 피어나는 생명의 법칙 ○ 寒梅吟(한매음)



이른 봄 서둘러 피는 꽃, 매화

여러분은 이른 봄 꽃을 피우는 매화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매화는 봄이 오기도 전에 가장 먼저 꽃을 틔우며, 잎보다 꽃을 먼저 피우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의 매서운 추위를 견디고 핀 매화는 단순한 꽃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낸 인내와 절개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문인화(文人畵) 속의 매화와 서정주의 시, 그리고 오언율시(五言律詩) 한 편은 같은 메시지를 공유합니다. 이들은 혹독한 겨울에도 굴하지 않고 피어나는 매화의 모습에서 자연과 인간이 겪는 삶의 시련과 극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매화 문인화와 서정주의 시

이번에 소개하는 문인화에는 서정주 시인의 시 「매화」가 캘리그래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정주의 「매화」는 매화의 봄을 알리는 향기와 그리움의 정서를 섬세하고 서정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 작품 개요

이 문인화는 매서운 추위를 이겨내고 핀 매화를 주제로 한 작품입니다. 먹의 농담(濃淡, 짙고 옅음)과 생동감 있는 필치, 그리고 매화의 강렬한 붉은 색채가 조화를 이루며, 매화의 기개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 작품 속 요소 분석

화면 구성과 구도

- 그림 속 매화의 굵은 가지는 화면을 가로지르며 힘찬 생명력을 표현합니다.
- 배경의 먹 농담 처리는 눈 덮인 바위와 차가운 공기를 암시하며, 혹독한 자연환경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 화면 오른쪽 하단의 서문(書文)과 낙관(落款)은 문인화의 전통적인 구성을 따르고 있습니다.

필법과 색채

- 가지는 강한 발묵법(潑墨法, 먹을 흘려 번지게 하는 기법)으로 처리되어 강인한 매화의 기상을 표현했습니다.
- 꽃잎은 담채(淡彩) 기법으로 붉게 칠해져, 검은 가지와 극적인 대비를 이루며 시각적 강조 효과를 줍니다.
- 꽃술은 세밀한 세필로 표현되어, 매화가 가진 섬세한 아름다움과 강인한 생명력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문인화적 요소

- 문인화는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그림 속에 시와 철학을 담은 예술입니다.
- 이 그림의 하단에 적힌 글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매화의 운명과 삶의 철학적 성찰을 담은 서문(書文) 역할을 합니다.
- 이는 아래 소개할 한시와도 깊은 연관성을 가지며, 매화의 존재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만듭니다.
- 작품 속 캘리그래피로 표현한 시는 서정주 시인의 ‘매화’라는 작품입니다.

매화(梅花) - 서정주

매화에 봄사랑이 알큰하게 퍼난다.
알큰한 그 숨결로 남은 눈을 녹이며
더 더는 못 견디어 하늘에 뺨을 부빈다.
시악씨야 하늘도 님도 네가 더 그립단다.
매화보다 더 알큰히 한 번 나와 보아라.
매화 향기에서는 가신 님 그린 내음새,
매화 향기에서는 오신 님 그린 내음새,
갔다가 오시는 님 더욱 그린 내음새,
시악씨야 하늘도 님도 네가 더 그립단다.
매화보다 더 알큰히 한 번 나와 보아라.

❁ 시 해설

이 시는 **매화의 향기와 함께 떠오르는 그리움**을 감각적으로 표현합니다. ‘알큰하다’라는 독특한 표현은 매화 향기의 강렬함과 **봄을 향한 간절한 기다림**을 강조하며, ‘시악씨야’라는 감탄사는 향기에 취한 감정의 고조를 더욱 생동감 있게 전달합니다.

문인화에 함께 쓰인 이 시는 매화의 모습과 함께 감상할 때 더욱 깊은 정서를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매화가 피어나는 순간의 **희열과 그리움**이 한 폭의 그림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오언율시(五言律詩) 한 편: 寒梅吟(한매음)

이제, 여전히 추운 이른 봄에 꽃을 피울 수밖에 없는 매화의 심정을 담아 **오언율시(五言律詩)** 측기식(仄起式) 한 편을 지어 봤습니다. 이 시는 寒(잘 한) 운목에 속하는 涼, 丹, 安, 難로 2, 4, 6, 8구의 마지막 글자들로 운을 맞췄습니다.

寒梅吟(한매음) - 혹한 속의 매화 노래

遠嶺殘氷在(원령잔빙재)

먼 산에는 아직 얼음이 남아 있고

晨風尚自涼(신평상자량)

새벽바람은 여전히 차가운데

何君無吐葉(하군무토엽)

어찌하여 그대는 잎도 틔우지 않고

急急此開丹(급급차개단)

이리 서둘러 붉은 꽃을 피우는가?

我豈甘如彼(아기감여피)

내가 어찌 스스로 그러고 싶어 그러겠는가?

除非命保安(제비명보안)

이렇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하기 어려운 것을

春寒侵骨苦(춘한침골고)

봄 추위가 뼈속까지 스며들어 괴롭고도 쓰라운데

汝識其中難(여식기중난)

그대는 이 고충을 아는가?

❁ 시의 해설과 의미

이 시는 추운 이른 봄에 꽃을 피울 수밖에 없는 **매화의 숙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2구 : 자연의 혹독한 환경

- 먼 산에는 아직도 얼음이 남아 있고, 새벽바람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 이는 매화가 꽃을 피우기에는 너무도 가혹한 환경임을 상징합니다.

3~4구 : 매화를 향한 질문

- “잎도 없이 먼저 꽃을 피운 이유가 무엇인가?”
- 보통 식물은 잎을 먼저 틔운 후 꽃을 피우지만, 매화는 반대로 꽃이 먼저 피어납니다.

5~6구 : 매화의 대답 (생존의 법칙)

- 매화는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먼저 꽃을 피워야만 합니다.
- 이는 단순한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연적인 전략입니다.

7~8구 : 매화의 고통과 숙명

- 매화가 먼저 꽃을 피운 것은 즐거운 선택이 아니라, 혹독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 마지막 구절에서 매화는 “그대는 이 고통을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 이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독자에게 삶과 고난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요구하는 구절입니다.

문인화와 한시, 그리고 우리의 삶

이번에 소개한 문인화, 서정주의 시, 그리고 한 편의 한시는 같은 메시지를 공유합니다.

❁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피어나는 생명력

❁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며 묵묵히 나아가는 정신

❁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고난과 인내

이처럼, 문인화와 한시는 서로를 보완하며 더욱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 그림은 시의 정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 시는 그림 속 매화의 이야기를 언어로 풀어냅니다.

이는 동양 예술의 핵심 개념인 ‘詩中有畫, 畫中有詩(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다)’라는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결론: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자만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매화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고난을 견딘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미(美)입니다.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고 피어나는 매화처럼, 우리도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추운 바람을 견디며, 피어나야만 합니다.”

힘난한 세월을 살아가는 방송기술인 여러분께,

이 한 점의 매화 그림과 한 편의 시가 큰 힘과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

글·한시 운호 이진호(雲湖 李進浩)

- KBS 남산송신소 근무 중
- KBS 사군자회 회원
- 서예/문인화 교육강사 1급

문인화(캘리그래피) 늘빛 박동희(늘빛 朴東姬)

- 대한민국미술대전 문인화부문 우수상
- 서울특별시장상 초대작가
- 경기 미술대전 초대작가, 심사, 운영위원
- 국제미술대전, 모스크바 드레자코프 전시
- 개인전.물빛전, 인사동라메르전시
- 한국미술 50년사 작가명감수록
- 서예, 문인화, 캘리그래피 1급지도사 및 초대작가
- 서예/문인화 교육강사 1급